

9월 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상품주 랠리.. 다우 0.5%↑</p>	<p>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 금속관련 상품주와 에너지주 강세에 힘입어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음.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소식도 경기회복 시그널로 해석되며 투자심리에 일조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56.07포인트(0.59%) 상승한 9,497.3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99포인트(0.94%) 오른 2,037.77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8.99포인트(0.88%) 상승한 1,025.39를 각각 기록했음.</p> <p>골드만삭스가 경기회복을 반영해 금속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개장초부터 금속관련 상품주가 강세를 보였음. 특히 美 달러화 약세로 금속가격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고, 상품 및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음. 여기에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총재가 "금융위기가 확실히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밝힌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 다만, 주식시장의 가격부담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지수들의 상승폭은 장중 크게 제약되기도 했음. 그러나 S&P 500 기업들의 2010년 이익이 25%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개선을 배경으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블루칩 종목중에서는 주가가 오른 종목이 23개, 내린 종목이 7개를 기록하는 등 상승종목이 훨씬 많았음.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경기회복 기대감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돼 미국 국채 가격은 만기별로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달러화 가치는 하락세를 나타냈음. 특히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71달러선까지 상승했음.</p>
<p>S&P 500, 내년 이익 25%↑..크레딧 스위스는 美증시 전망↑</p>	<p>6개월 랠리로 인해 가격부담이 커졌지만 향후 기업들의 실적개선으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음.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1,500명의 애널리스트의 기업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P 500 종목들의 이익은 내년엔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블룸버그는 이에 따라 올해 이익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의 주가이익비율이 2004년 이래 최고치인 19배에 달하고 있지만, 내년 실적기준으로는 13.5배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음. 이는 1년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향후 실적개선이 최근 랠리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음.</p>

제목	주요 내용
IMF 총재 "리먼 파산 시킨 금융위기 끝자락"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총재는 이탈리아 경제지 일 솔레 24 오레(II Sole 24 Ore)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를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했던 금융위기가 확실히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이는 당초보다 1분기 가량 빠른 것이며,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경제위기) 터널의 끝을 보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아직도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모습이었음. 칸 총재는 또 이탈리아의 경제전망이 당초보다 상향 조정될 것임을 언급해 IMF가 금주 중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했음.
국제유가 4%대 급등... 다시 71달러선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등하며 70달러대에 다시 올라섰음.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08달러(4.5%) 급등한 71.10달러로 마감했음. 유가는 장중 71.95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마감가가 배럴당 71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처음임.
韓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11위→13위→19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 정부가 친(親)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업경영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고질적인 노사갈등이 순위를 가장 많이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정치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33개국을 대상으로 2009년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위에서 19위로 6단계 하락했음. 한국은 지난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래 지난해(13위)와 올해(19위) 2년 연속 경쟁력 순위가 떨어졌음.
中 `위안화 국제화` 야심찬 시도..첫걸음부터 삐걱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실시 이후 일각에서는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기축통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뤘지만 초기 실적은 이같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8일 상하이 총영사관과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실시 이후 8월말까지 위안화로 결제가 이뤄진 무역거래 대금은 총 9,200만 위안(약 1,300만 달러)에 그쳤음.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과 재정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기관 고위직이 참여하는 위안화 국제화 추진 전담 TF(태크스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음.
日 민주당 정권 하 `재앙적` 재정상태 우려	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칼 와인버그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신정부가 정부 차입과 장기채 발행을 늘리는 지출 및 세금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재무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 민주당은 정부 국채발행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기존 부양예산에서 5조엔 가량을 끌어와 양육과 교유그 고용 지원 자금으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양육보조금 등을 위해서는 7조1,000억엔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상태로 공약 실현에 의구심이 제기돼 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